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이사야서 53:10-11 제2독서 히브리서 4:14-16 복음 마르코 10:35-45

◎말씀 < 섬김의 정신 >

코로나의 긴장감이 늘 도사리고 있는 생활속에서도 곳곳하게 지내고 계시는 교우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코로나로 느슨해질 수 있는 마음들을 끊임없이 추스르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중 제29주일에 듣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러 왔다.” 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스승이신 예수님께 훗날 자신들의 자리를 도모하면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짧은 안목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찬찬히 제자들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사명을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교육하며 들려주신 말씀에는 구세주의 본 모습과 사명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부족함에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 버렸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매순간 그러지 않고 살겠노라 다짐을 하면서도 복음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섬김의 정신을 망각한 것은 아닌데도 신자들의 웃음과 대접속에서 섬김을 받았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 혼자서 이불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섬김의 정신을 다시한번 되새기고 올바른 섬김으로 사는 사제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이웃 안에서 섬김의 정신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다른 가족들을 섬기지 않아 힘들게 했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섬김의 정신이 아닌 개인적인 욕심으로 윗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섬김을 실천하려다가 상대방의 외면이나 무례함으로 인해 마음을 접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의 정신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삶이 될 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드러나실 것입니다.

오늘 1독서 이사야서에서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했습니다. 주님을 닮아 섬김의 정신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봉사와 섬김은 우리의 진정한 참 모습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0월 19일(화)	성 요한 드 브레비프, 성 이사악 조그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저녁 7시 30분	주일헌금	\$ 1,284.00
			교우금	\$ 4,510.00
10월 20일(수)	연중 제29주간 수요일	오전 7시 30분	성물방	\$ 45.00
			감사헌금	\$ 1,000.00
10월 21일(목)	연중 제29주간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자선비	\$ 160.00
			광고비	\$ 200.00
10월 22일(금)	연중 제29주간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성소후원	\$ 180.00
			기타	\$ 0.00
10월 23일(토)	연중 제29주간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합계	\$ 7,379.00
10월 24일(일)	연중 제30주일	오전 9시(학생) 오전 11시(교중)	미사참례자	학생/아동: 8명 성인: 131명
교우금 봉헌자	진엘리사(11-12)주문엽.최중구.이상일(10-12)김근수(8-12)강석만(7-12)홍영순(1-12)김규철(10-11)전정옥(9-10)박재례(6-10)황호민(8-9)권영일.금외주.성영진.이재덕.김상돈.전우성.지복원(10)			

◎신앙생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 욥시21:5)

가톨릭교리상식

◎기도는 반드시 지향을 두고 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것은 그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그렇듯, 하느님과 반드시 어떤 주제를 가지고만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풀어놓는 것 만으로도 훌륭한 기도가 되리라 봅니다. 한편 무엇보다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귀를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쉽게 지치잖아요? 지향을 가지고 나의 바람을 아뢰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에 귀 기울인다면 주님과의 대화가 더 즐거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는데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응답이 없을 땐 어찌해야 하나요?

어쩌면 우리는 감각적인 것들에 너무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면서도 매번 보이는 것을 찾으니 말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온전히 그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길거리에서 그냥 음악을 들으면 여러 소음과 섞여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어폰을 귀에 꽂으면 노랫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죠. 침묵 가운데 마음을 주님께 모으세요. 그렇게 주님께로 향할 때 새의 지저귀, 바람의 움직임, 빗방울의 속삭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한편 기도의 응답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전 생애를 두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약속을 믿으며 광야를 건넌고, 긴 유배 생활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이뤄졌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바람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루카복음 11장 9-13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들어보세요. 주님과의 대화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꾸 다른 생각이 납니다. 생각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면 분심은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에 떠있는 낙엽은 그냥 내버려 두어야지, 치우려고 휘휘 저으면 고요했던 호수는 물결로 일렁이게 됩니다. 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두세요. 분심이 생겼다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분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나게 됩니다. 잠시만 그렇게 머무르다 보면 내 마음이 아닌 하느님께로 깊이 잠기게 됩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김정필 .라파엘 /윤태옥 .안나 /원정은 .카타리나 백정심 .막달레나 /기은희 .마리아 /김나미 .로사 김옥륜 .세실리아 /추소연 .세실리아 /영안드레아 김숙자 .수산나 /김초지 .마리아 /이규청 .제노비아 엄모니카 /배미성 .오틸리아 /박모란 .글라라 고공자 .벨라뎃다 /신용경 .그레고리오 /이상일 .마리아 남필레 .마리아 /김화진 .요안나 /김영미 .마리아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 ; 박울리아 .916-990-6531 / 박프란치스코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여길선요안나 영혼	김근수요한가족	생	조유원요셉 영육건강	조윤희밀지다
연	전기레베레나 영혼	조영진안드레아	생	진토니 빠른 건강회복	이영숙데레사
연	오영애바울라 영혼	오토마스자녀들	생	진토니 빠른 건강회복	김미해세레나
연	이돈수알폰소 영혼	이주엽발렌티노			
연	서정선엘리사벳 영혼	안윤석			
연	이호순수산나 영혼	주크리스티나			
연	박순미요안나 영혼	전율리안나			

가작족지

◎ 은총은 ◎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사랑은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감사는 모든 주위를 편케하여
 따뜻한 정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은총

마종기 노렌조 시인.의사

●공동체 소식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21:5)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1인 1신심단체, 1봉사단체 가입하기>

1. 목주기도 성월(전교의달) 목주기도 안내

일시:미사30분전 (화/목/금/일)

기도담당:게시판 참조

2. 서북미 한인 꼬미시움 회합

일시:17일(일)교중미사후.친교실

대상:서북미 6개 꾸리아 간부 및 우리 본당

각 뽀레시디움 4간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 교구 2차헌금 안내

일자:24일(일)모든미사

목적:World Mission Sunday

4. 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29일(금)저녁7시30분

저녁7시부터 찬미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 본당 사목회의 개최

일시:31일(일)교중미사 직후. 구사제관

사목회 회칙개정에 관한 토의가 있습니다.

많은 사목위원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6. 병자성사 및 봉성체 신청

병자성사가 필요한 위급한 환자나 봉성체를 원하시는 환자 가정에서는 신부님께 개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학생미사 (매주일 오전9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학생미사때 좌석을 구분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학생.학부모(독서대쪽)/일반성인(미사해설대쪽)

● 성당 내에서의 소규모 단체모임 허용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본당 제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단체모임(10명 내외)에 한해서 본당 사용을 허락합니다.

본당 신부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에서 발행한 Check는 빠른 시일 안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 된 Check를 입금하지 않고 8개월이 지나면 찾을 수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Check는 본당 자선비로 봉헌 처리하려고 합니다.

● 코비드19 관련, 본당 방역 지침 (요약)

- ①성가책과 기도책은 모두 개인이 지참.사용 하시기 바라며, 미사후에는 개인소지품은 댁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②악수/포옹 등의 신체적 접촉은 삼가하시고, 코비드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세정제 사용을 생활화 합니다.
- ③미사 참석하는 모든 신자들의 성가제창 및 기도문 봉독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합니다
- ④성당내 소규모 단체모임은 사전에 신부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⑤그 외 사항은 교구지침을 따릅니다.

화답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전례봉사	연중 제29주일(10월17일)	연중 제30주일(10월24일)	연중 제31주일(10월31일)	연중 제32주일(11월7일)
미사해설	김은영.폴리나	이순자.요안나	최금주.요안나	김은영.폴리나
복사	장현철엘리아	최진호.다니엘	최준우.루카	김규철.레오
헌금위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광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목시 21:5

주보제작: 박봉준. 프란치스코살레시오(909-573-5322) E-Mail: 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

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

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

메리서 부동산·용자·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Print N Signs

Signs/Banners/T-Shirt
Wrap/Windows Tint
Soheil Samiee
(916)844-0280/914-3794
PrintsNsigns16@gmail.com
9336 La Riviera Dr. #B

장의사 W.F.Gormley & 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Aeyon Lee RPh
(이애연 플로렌시아)

개인면담(사전예약필요)
교중미사후 친교실(격주)
(916)276-1834

aeyon7511@gmail.com

**성당
FM주파수
107.9**
(야외미사)

성당제출용
CHECK 발행할 때
**Payee to:
St.J.H.C**

교무금 봉헌 은행계좌 안내

입금은행: Wells Fargo

예금주: Pastor of St Jeong-Hae Elizabeth

계좌번호(Account#): 360 184 1897

교무금 등 각종 봉헌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신자의 의무사항입니다.